

동남
아시아

오순화(싱가포르 난양공대 사진과 교수)

내외부인의 시선에서 본 중동 여성의 삶

레바논 출신 미국작가 라이나 마타르의 개인전



Rania Matar, Gahr



Rania Matar, Ordinary Lives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바논 출신의 여성작가 라이나 마타르(Rania Matar)의 개인전이 싱가포르 프랑스문화원 안에 있는 소시어테 제너럴 갤러리에서 오픈했다. 라이나는 레바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명문 코넬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그뒤 그녀는 네 아이를 둔 엄마로 그리고 성공한 건축가로 미국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미국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2001년에 일어난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은 중동 출신이면서 미국인인 그녀에게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디어에 등장하는 중동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전쟁, 공포 등 극단적인 상황뿐이었고, 자신이 기억하는 중동에서의 평범한 삶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라이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에서의 삶의 경험과 기억, 관찰을 사진을 통해 묘사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자신을 내부인 즉, 중동인이면서 동시에 외부인인 미국인으로 간주한다. 중동인의 평범한 삶을 내부인의 입장에서 표현하면서 더불어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갖게 된 이방인으로서의 객관적인 시선에서도 중동인의 삶을 관찰하고 사진으로 담았다.

작가의 지난 10년 동안의 작업은 흑백과 컬러사진으로 나뉘며,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레바논에서 찍은 사진만 모아 전시되었다. 언뜻 보기에 사진 속 장면들은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일상의 모습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붕괴된 건물, 파손된 벽을 배경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동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보인다. 베일로 머리를 가리고 신문을 읽고 있는 중년의 여인들, 해변에서 뒷짐을 진 여성의 손에 들린 담뱃갑, 서구 여성의 방안을 연상시키는 속옷과 잠동사니 속에서 요염한 포즈를 취한 여성 등이 라이나의 사진 속에 잡혔다. 한편 중동 출신 작가들의 전시가 미국 보스톤의 파인아트 미술관과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미술관 등 세계적인 대형 미술관에서 잇따라 기획되는 시점에, 라이나의 이번 전시도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중동인들의 일상을 중동 출신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